

초-중등 간 연계성 있는 고전 서사 교육을 위한 교과서 검토와 방법 제안

조성윤(동국대)

< 목 차 >

1. 서론
2. 고전 서사 교육의 학교 급 간 연계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 2.1. 고전 서사에 대한 전제의 괴리
 - 2.2. 텍스트 수준의 급진적 상승
 - 2.3. 작품 및 활동의 병렬적인 유형과 구성
3. 초-중등 간 연계성 있는 고전 서사 교육을 위한 방법 제안
 - 3.1. 고전에 대한 일상적 관점의 지속적 유지
 - 3.2. 갈래 간 균형 있는 교육 제공
 - 3.3. 계속적·단계적 교육의 추구
4. 결론

국문초록

이 연구는 초-중등의 국어과 교과서가 연계성 있는 고전 서사 교육을 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중등의 국어과 교과서에서 고전 서사 교육은 연계성 측면에서 3가지 문제점이 보였다. 첫째, 초등 국어에서는 고전이 일상 국어의 기본 자료인 반면에, 중등 국어에서는 고전이 급진적으로 심화된 국어 문화 활동이자, 텍스트화 된 학습 자료로 전환되어 고전 서사에 대한 초-중등 간 전제의 괴리가 심하다는 점이다. 둘째, 초등에서 중등

으로 가면서 학교 급 간 텍스트 난이도와 길이, 갈래와 작품의 수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고전을 어렵다고 느끼게끔 한다는 점이다. 셋째, 그러나 학교 급별 변화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초-중-고에서 동일 작품을 심화 단계 없이 병렬적으로 제시하거나, 성취기준과 학습목표가 다르지만 학습활동의 유형과 구성이 비슷한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고전 서사 교육은 문학·문화 교육과 더불어 일상 국어 생활을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는 관점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고, 둘째, 고전 서사 각 갈래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균형 있는 교육을 제공하도록 해야 하며, 셋째, 계속적이되 단계적으로 심화되는 교육을 추구하여, 초-중등 간 연계성 있는 고전 서사 교육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핵심어 : 초-중등 고전 연계 교육, 고전 서사 교육, 연계성, 일상적, 균형적, 계속적, 단계적

1. 서론

이 연구는 초-중등의 국어과 교과서가 연계성 있는 고전 서사 교육을 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중등 간 연계성 있는 교육을 제안하는 데 특히 고전 서사 교육을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첫째, 초등학교까지 고전에 해당하는 전래동화를 익숙하게 읽고 자신의 삶과 함께 하는 이야기로 즐기던 학습자들이 중·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다른 학습에 비해 유독 고전 문학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이유를 분석해 보기 위해서이다. 둘째, 고전 문학 내에서도 고전 시가

가 아닌 서사를 택한 이유는 시가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에 가서야 시조가 본문 텍스트로 처음 등장하기 때문에 고전 서사를 대상으로 초·중등 교육의 연계성을 검토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셋째, 고전 산문이 아닌, 고전 서사라는 명칭으로 검토하고자 한 이유는 구비 문학에 해당하는 설화, 무가(巫歌), 판소리, 민속극, 교술 산문 등을 포함하기 위해서이다. 주지 하듯이 한국 문학에는 구비 문학이 포함되고, 특히 고전에 구비 문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한데, 산문이라 이름 한다면, 글로 교과서에 실렸지만 실제로는 글이라 할 수 없는 상당수의 구비 문학들이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이야기가 있다는 뜻인 서사라 칭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연구는 초·중등 국어과 교과서의 텍스트 가운데, 고전 소설, 전래동화를 포함한 다양한 고전 시대의 설화, 구연 혹은 공연을 전제로 하는 고전 시대의 무가, 판소리, 민속극, 그리고 사실과 경험을 다룬 고전 시대의 여러 교술 산문들을 포함한, ‘고전 서사’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그간 매 교육과정마다 국어과 교과서에서 고전 문학 분야 전반을 분석하고 검토했던 연구들이 있어 왔다. 대체로 고전 시가와 고전 소설 각각을 연구하였고, 시가와 소설을 모두 다룬다 하더라도 초등과 중등을 나누어 연구하였다(강문종, 2019; 김용기, 2014; 김창규, 1986; 이원수, 2014; 장경남, 2010; 조희정, 2016; 천효정, 2017; 최홍원, 2017). 또한 고전 제재 전반에 대해 시대별 통시적으로 고찰한 연구(서명희 외, 2006; 조희정, 2005; 조희정, 2008)가 있었고, 공식적으로는 타 교과서와 제재 비교한 연구(백순철 외, 2013)가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별 학습자가 학교 교육을 받으며 고전 문학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어떻게 축적되는지 학습자 개인에게 쌓이는 ‘고전 문학에 대한 경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을 가르치는 것이 결국 이후에 문학 독자를 양성하는 것이라면, 초등 내에서 혹은 중·고등학교 학습 내에서 학교 급별 교육을 따로 생각하기 보다는,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12년간의 문학 교육 ‘과정’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교육의 양상을 살피는, ‘연계성’ 있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¹⁾

이 연구에서 ‘연계성’이란, 교육에서 강조해 오는 계열성이나 위계성의 개념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초-중-고의 학교 급별 고전 서사 교육의 내용이 서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점이 있어서 한 갈래로 이어지되,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따른 국어사용 능력이나 문학 능력의 수준이기 때문에, 학교 급 간 난이도와 같은 수준별 차례와 순서가 마땅히 존재해야 한다는 뜻이다. 연계성의 측면에서 파악해야 하는 교육 내용은 고전 서사 텍스트의 형식과 내용뿐 아니라 갈래의 종류, 동일 텍스트에 대한 학습 활동의 유형과 난이도까지 포함하였다.

따라서 현재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는 과연 연계성 있는 고전 서사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지, 초등과 중등의 고전 서사 교육이 단계적으로 심화되면서 연결고리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혹시 부족한 점은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겼다.

이에 본고는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과 교과서²⁾ 전체에서 고전 서사가 포함된 단원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학습 목표 및 관련 성취 기준, 갈래와 종류, 동일 텍스트에 대한 본문 및 학습 활동 구현 양상을 연구 범위로 한정하여 탐구하였다. 이 세 가지 지점에서 고전 서사 교육의 학교 급 간 연계성에 대해 검토를 한 후, 앞으로 초-중등 간 연계성 있는 고전 서사 교육을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방법을 제안하였다.

-
- 1) 교육의 목적에 따라 고전 서사의 교육은 다양하게 배치, 활용될 수 있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특히 ‘연계성’에만 주목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연계성을 바탕으로 둔 상황에서, 이후 고전 서사 교육의 다양하고 폭넓은 활용을 덧붙인다면, 고전 서사 교육이 축소되거나 배제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벗어나, 오히려 학습자의 수준과 발달 능력을 더욱 고려한 교육이 될 것이다.
 - 2) 2019년에는 초1-6학년, 중1-2학년, 고1-2학년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로 교육받았다.

2. 고전 서사 교육의 학교 급 간 연계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2.1. 고전 서사에 대한 전제의 괴리

교육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틀은 교육과정이다. 따라서 고전 문학과 관련하여 어떠한 철학을 드러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역시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된다. 그러나 초·중등 국어과 교육과정에는 특별히 고전을 따로 구분지어 기술한 부분이 없다. 따라서 각 학년(군)별 ‘국어’ 교과와 목표를 통해 국어 교육의 철학을 비교하여, 고전 문학 교육에 대한 전제 역시 비교, 짐작해 보도록 하겠다.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학년(군)별 ‘국어’ 과목의 목표 비교

구분	학년(군)별	목표
㉑	1-2 학년군	취학 전의 국어 경험을 발전시켜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초 문식성을 갖추고, 말과 글(또는 책)에 흥미를 가진다(교육부, 2015: 11).
㉒	3-4 학년군	생활 중심의 친숙한 국어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적인 국어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의사소통 태도를 생활화한다(교육부, 2015: 20).
㉓	5-6 학년군	공동체·문화 중심의 확장된 국어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국어 교과와 기초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추고, 국어의 가치와 국어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교육부, 2015: 30).
㉔	중학교 1-3학년	목적, 맥락, 주제, 유형 등을 고려한 다양한 국어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국어 교과와 기본 지식과 교과 역량을 갖추고, 자신의 국어 활동과 공동체의 국어문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하는 태도를 기른다(교육부, 2015: 41).
㉕	고등학교	다양하고 심층적인 국어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통합적인 국어 역량을 갖추고, 국어 활동의 개선과 바람직한 국어 문화 형성에 이바지한다(교육부, 2015: 57).

<표 1>과 같이 학년(군)별 국어 과목의 목표를 비교해 보면, 초등에 해당하는 ㉠, ㉡, ㉢는 ‘생활과 경험’을 기본으로 하여,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기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중·고등에 해당하는 ㉣, ㉤는 일상에서의 다양한 국어 활동을 포함하되, 학습자가 국어 역량을 갖추어 ‘공동체 내에서 국어 활동’을 하고 ‘국어문화 형성’에 이바지하는 단계까지 좀 더 전문적으로 나아가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전 서사 교육에 문제가 되는 지점은, 고전 제재와 텍스트가 초등에서는 너무 ‘일상’에 치우쳐 드러나고 있고, 중·고등에서는 일상 국어 활동과는 동떨어진, ‘문학’과 ‘문화’로 구성되어 있는 경향이 크다는 점이다.³⁾ 다시 말하면 고전 제재와 텍스트에 대한 인식과 전제가 초·중등이 많이 달라,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고 괴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중등 국어 교육 역시 일상의 다양한 국어 활동들을 기본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고전을 초등 국어에서는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등 모든 영역의 기본적인 ‘국어 자료의 예’로써 ‘고전 서사’를 제공하고 있는⁴⁾ 반면에, 중등 국어에서는 다양한 국어 활동에서 기능 영역을 제외한 문학으로만 다루는 모습이 크다는 것이다. 심지어 초등 국어에서는 일상 국어 능력을 갖추기 위한 활용 자료로 현대 문학 제재보다 고전 문학, 특히 고전 서사 제재를 더 많이 쓰고 있음을 볼 수 있고, ‘고전’이라고 했을 때 흔히 학습자들이 느끼는 거리감이나 어려움은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영역의 국어 교육에 녹아 있음을 볼 수 있다.

3)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구현한 교과서 역시 이처럼 구성되어 있었다.

4)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한국 문학의 전통이 잘 드러난 고전 서사 자료가 제재와 화제의 형태로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소재 차원에서 많이 사용되었다(정혜승, 2018).

<표 2> 초등 교과서에서 '고전 서사'를 활용하고 있는 국어 자료의 예

<p>읽어보기 그림을 보고 놀부와 흥부가 어떤 말을 할지 이야기해 봅시다.</p>  <p>① 말하기 · 듣기</p>	<p>1 글을 읽고 줄거리를 생각해 봅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도끼와 자라”를 읽고</p> <p>아침에 보성이가 “도끼와 자라”를 읽고 있었다. 잠잘 준비도 하는 것을 보니 저녁 때가 되어 보였다. 그때가 어느 도시락에 가서 “도끼와 자라” 책을 읽어 읽었다. 자라는 흥부의 말을 듣게 하려고 도끼의 간을 구하려 했다. 도끼는 자라에게 죽기 싫은 줄을 알게 하려고 죽었다. 흥부도 도끼에게서 자라에게 죽기 싫은 줄을 알았다. 도끼는 당황하지 않고 꼬를 내어 자라를 죽이기를 성공했다.</p> <p>밤을 리스며 자라의 말에 황제 측은 도끼의 말이 옳아 보였다. 하지만 도끼가 자라를 죽여 내는 줄을 몰라 있었다. 어느 도끼처럼 기체를 구할까 하고...</p> </div> <p>다) “나”는 어떻게 “도끼와 자라”를 알게 되었나요? 예) “도끼와 자라” 책을 읽어서 알게 되었습니다.</p> <p>② 읽기</p>
<p>1 그림에 어울리는 흥나 내는 말을 1에서 찾아 써 봅시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흥나</p> <p>흥나</p> <p>흥나</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흥나</p> <p>흥나</p> <p>흥나</p> </div> </div> <p>③ 문법</p>	 <p>④ 쓰기</p>
<p>1 의 내용 간추리기</p> <p>책 한 권을 읽거나 읽고 책 내용을 간추려 봅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책 제목 별호 저자</p> <p>.....</p> </div> <p>⑤ 독서(요약)</p>	<p>1 내용을 떠올리며 책 읽기</p> <p>흥고집</p> <p>이 책은 흥고집이 흥고집으로 말을 읽어 보려고 써놓은 책이다. 흥고집은 흥고집이 흥고집으로 말을 읽어 보려고 써놓은 책이다. 흥고집은 흥고집이 흥고집으로 말을 읽어 보려고 써놓은 책이다.</p> <p>⑥ 독서(메모)</p>
<p>1 그림을 보고 어떤 이야기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림의 밑에 있는 글귀를 찾아서 읽어 봅시다.</p>  <p>⑦ 독서(발표)</p>	<p>1 의견의 뜻 알기</p> <p>흥고집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고 ‘오성과 한음’을 읽어 봅시다.</p> <p>오성과 한음</p> <p>어느 날 아침, 한음이 오성의 집에 놀러 왔습니다. 오성의 집 마당에 있는 큰 갈나무에는 빨간 갈이 탐스럽게 열려 있었습니다. 이 갈나무 가지에는 탐내며 열린 권서 때까지 열려 있었습니다.</p> <p>⑧ 읽기/ 말하기/ 쓰기</p>

<표 2>는 초등 국어 교과서에서 고전 서사를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어 자료의 예시이다. 앞서 밝혔듯이, 고전 제재가 단순히 문학 영역에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볼 수 있는데, ‘일상생활과 학습’에 방점이 있는 초등 교육과정의 기본 전제에 충실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말하기·듣기, 읽기, 문법, 쓰기, 독서 등 모든 방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활동 자료로 제시되고 있는 제재와 텍스트가 ‘거의 대부분’ 고전이였다. 저학년 국어 교과서에는 고전 자료의 비중이 더욱 크고, 심지어 설화에 해당하는 전래동화의 한 장면만 보고도 학습자들이 내용과 주제 등을 유추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다. 초등 국어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료로서 특별히 고전의 제재와 텍스트를 제시하지 않아도 될 법한데, 모든 영역에서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고전의 제재와 텍스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초등 국어 수준에서의 고전이라는 것이 초등학생으로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지식’이자, ‘기본 언어생활 습관과 연관이 되는 이야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은 초등 국어의 고전에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설화’로서의 ‘전래동화’의 의의 및 기능과 관련이 있다. 전래동화는 예로부터 구비 전승되던 신화, 전설, 민담이나 판소리 혹은 판소리계 소설 등의 고전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순화하여 쉽게 각색한 것이다. 이러한 전래동화는 유아, 초등 시기에 당연히 알아야 할 우리의 옛 이야기로 인식되는데, 그것은 그 속에 담긴 고전의 언어와 생활, 사상, 예술 등의 문화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고, 결국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고전-현재-미래가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래동화에 담긴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과 삶은 초등 시기 교육에 꼭 필요한 기본 생활 습관 형성과 인격 형성에 크게 이바지한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초등 국어에서 모든 영역에 고전 제재와 텍스트가 기본 예시의 기능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할 수 있다.⁵⁾

5) 옛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근원적 모습들은 옛이야기의 주제 및 교훈으로 나타나는데, 옛이야기 작품이 보여주는 내용과 그 주제적 상징은 학생 내면의 성

이와 같은 의의를 지니고 있는 초등 국어 교과서에 드러나는 고전 서사 자료의 기능들을 귀납적으로 정리해 보면,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초등 국어 ‘국어 자료의 예’에 제시하고 있는 여러 예시들과 거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즉, 초등 국어에서 고전 서사는 앞서 기술했던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지식’이자, ‘기본 언어생활 습관과 연관이 되는 이야기’로써 잘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초등 국어 ‘국어 자료의 예’⁶⁾ 중 ‘고전 서사’를 활용하고 있는 자료

구분	학년(군)별	‘고전 서사’를 활용하고 있는 국어 자료의 예
㉠	1-2학년 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숙하고 쉬운 낱말과 문장, 짧은 글 - 가까운 사람들과 주고받는 간단한 인사말 -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간단한 대화, 짧은 글, 시 - 사건의 순서가 드러나는 간단한 이야기 - 인물의 모습과 처지, 마음이 잘 드러나는 이야기, 글 - 상상력이 돋보이는 그림책, 이야기, 만화나 애니메이션 (교육부, 2015: 20 발췌)
㉡	3-4학년 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임법이 나타난 일상생활의 대화 - 중심 생각이 잘 드러나는 문단이나 짧은 글 - 본받을 만한 인물의 이야기를 쓴 전기문, 이야기나 극 - 사건의 전개 과정이나 인과 관계가 잘 드러나는 이야기, 글(교육부, 2015: 29 발췌)
㉢	5-6학년 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사람들과 생활 경험을 나누는 대화, 생활문 - 다양한 관용 표현이 나타나 있는 글 -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문학 작품 - 현실이 사실적으로 반영되거나 환상적으로 구성된 이야기(교육부, 2015: 40 발췌)

장을 도울 수 있는 주제가 강조되어야 하며, 특정한 가치에 편향되지 않는 다양한 주제, 즉 다 양한 인간 근원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배재훈, 2019: 324-326)고 말한 바와 같이 초등 시기의 고전 서사 교육은 학습자들에게 꼭 필요한 기본 생활 습관 형성과 인격 형성에 크게 이바지한다.

6)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는 학년(군)별로 활용할 만한 ‘국어 자료의 예’를 제공하고 있다.

<표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초등 국어에서는 고전 서사의 제재와 텍스트를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하고 있다. 친숙하고 쉬운 낱말 교육에서부터 간단한 일상 대화, 짧은 글쓰기와 같은 경우에도 고전 서사가 예시로 반영되어 있다. 중등 국어에서 고전 문학은 일상이 아니라, 하나의 작품으로써 당대를 짐작해 보고 지금의 관점에서 이해, 감상해 보는 목적으로만 거의 활용하고 있는데, 이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초등 국어에서의 고전 문학과 중등 국어에서의 고전 문학에 대한 인식과 전제가 너무 다르다는 것이다.

한편, 중등에서 고전 서사의 경우는 중·고등학교 국어 과목에서 다음의 <표 4>와 같이 제시되고 있다.

<표 4> 중·고등학교 국어 과목에서의 고전 서사 활용 예시

구분	학교 급	‘고전 서사’ 활용 예시
㉠	중학교 1-3학년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과 성찰 - 문학 감상 - 비유와 상징 - 개성 있는 발상과 표현 - 독서와 연극 - 읽고 요약
㉡	고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의 이해와 가치 - 문학의 갈래와 구조 - 문학의 수용과 생산 - 능동적 읽기와 주제적 해석

<표 4>는 현재 활용하고 있는 중등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이다. 중등 국어에서의 고전 서사는 거의 대부분 문학 영역에서 다루고 있으며, 읽기, 독서, 요약하기 등에서 활용한다 하더라도 역시 문학을 감상하고 이에 따른 학습을 하는 것과 같은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표현을 익히는 단원에서 독특하게 활용된 듯 보이지만 이 역시 문학적 표현을 익히는 것으로, 영역으로 따지면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초등 국어에서 고전이 ‘일상 국어의 기본 자료’이자, ‘구어 담화, 문어 담화’에서 모두 활용하던 ‘이야기’였다면, 중학교-고등학교로 가면서 고전이

라는 것은 점점 ‘심화된 국어 문화 활동’이자, ‘텍스트화 된 학습 자료’로만 전환·인식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상’에서 ‘학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학습 단계와 절차라고 하기에는 초등과 중등의 고전 서사에 대한 전체의 괴리가 심하다. 초등에서의 고전 서사 활용처럼 중등에서도 일상 언어생활의 다양한 예시부터 문학, 문화 학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폭넓게 충분히 활용 가능하지만, 학교 급이 올라가면서 연결되는 지점이 끊긴 상황이다. 생활과 문화가 녹아 있는 우리 고유의 이야기가 바로 고전 서사라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것을 중등 교육에서 오히려 차단하고 있으면서, 시공간적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 고전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등, 현재 중등 고전 서사 교육을 지역적이고 미시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고전 서사에 대한 초-중등 간 연계성 있는 교육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2.2. 텍스트 수준의 급진적 상승

두 번째로 살펴볼 지점은 초-중등 간 텍스트 수준 차이가 심하다는 점이다. 앞 절에서 살핀 바와 같이 초등에서는 고전 서사가 설화 중심의 제재와 줄거리, 간단한 텍스트로써 모든 국어 영역의 기본 자료로 제공되다가 중학교 국어부터 급격하게 난이도가 상승하여 중등 국어과 고전 서사의 경우 ‘한자어’가 다수 포함되거나 ‘고어’로 표현된 ‘문학 작품’으로 제시되고 있다. 중학교 1-3학년 문학 영역은 ‘심미적 체험으로서 문학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관점과 방법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교육부, 2015: 52)’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고등학교 국어에서 문학 영역은 ‘문학이 언어 예술(교육부, 2015: 65)’임을 알고, ‘갈래 고유의 특성이 실현되는 양상을 이해하도록(교육부, 2015: 66)’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학교 시기부터는 고전 서사를 최대한 당대에 사용하던 문자로 제공하여 그 시대의 미적 체험, 예술로서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중등 국어과 고전 서사 교육의 경우, 교육과정 성취기준과의 합치 정도, 중-고의 단계적 난이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지만, 문제가 되는 지점은 초등과의 연계성 부족하다는 점이다. 초등 국어에서는 4학년부터 단순한 전래동화를 넘어서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설화, ‘웅고집전’과 같은 판소리 계열의 고전소설, ‘김만덕’과 관련한 고전교술산문, 신화 및 영웅소설도 등장하지만, 단순한 줄거리에 불과하거나 제재로만 등장, 혹은 본문 텍스트가 제시된다 하더라도 전혀 고전이라고 느낄 수 없을 만큼 제목과 텍스트를 현대화하여 변형 제시하고 있다. 시공간적인 거리감을 느끼게 하여 옛 것으로 인식하게 하기 보다는 우리 삶의 다양한 이야기 중의 하나라고 인식할 수 있게, 고전을 쉽고 재미있게 접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양하게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등 국어과 교육으로 넘어가면서 점차 심화된 양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제시되는 텍스트의 길이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표 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난이도 역시 급격하게 어려워져 학습자들이 고전 학습에 고전(苦戰)하게 된다.

또 다른 문제점은 중등으로 가면서 국어과 교과서에서 배워야 할 영역들이 더욱 다양해지고 고전을 ‘고전 문학’으로만 다루다 보니 고전 서사의 수록 비율이 점차 줄어들게 되는데, 반면에 고전 갈래의 수는 급격하게 많아지고, 심지어 교과서에서 배우지도 않은 여러 고전 서사 텍스트들을 모두 알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중학교 국어에 가서는 고전 서사의 수록 비율이 줄어 ‘주몽신화, 무속설화, 춘향전, 흥부전, 흥길동전, 양반전’ 정도의 텍스트에 한정하고 있지만, 보조 자료를 늘려 줄어든 수록 비율에 비해 고전 서사에 대한 학습 부담을 크게 느끼게 되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또한 고등학교 문학 교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전 서사 작품만 살펴봐도, 갈래와 작품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출판사 별로 서로 다른 작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의 <표 6>와 같다.

**<표 6>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고전 서사 작품 목록**

구분	작품명	갈래	구분	작품명	갈래
1	가락국기	설화	24	조웅전	고전
2	김수로왕 신화		25	임경업전	소설
3	김현감호		26	봉산탈춤	탈놀이
4	나무꾼과 선녀		27	양주별산대놀이	
5	단군신화		28	하회별신굿탈놀이	
6	용소와 며느리바위		29	장끼전	판소리
7	이야기주머니		30	적벽가	
8	조신		31	춘향가(전)	
9	주몽신화		32	홍보가(전)	고전 교술 산문
10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		33	차마설	
11	어미 말과 새끼 말		34	경설	
12	광문자전		35	조침문	
13	구운몽	36	관상가와외의 대화		
14	사씨남정기	37	낙치설		
15	소대성전	38	상기		
16	예덕선생전	39	이옥설		
17	운영전	40	수오재기		
18	유충렬전	41	일야구도하기		
19	이생규장전	42	요술에 대하여		
20	호질	43	공방전		
21	허생전	44	한중록		
22	홍개월전	45	의산문답		
23	이춘풍전				

<표 6>에서 거의 대부분의 작품은 수록 횟수가 1회인데, 이것은 출판사 별로 제시되는 작품이 다르다는 뜻이다. 출판사 별로 다른 작품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말하면, 국가 수준의 평가에서는 학습자가 배우지 않은 고전 서사 작품까지 모두 알아야 한다는 것과 같다.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고전 서사가 고어로 제시되기까지 한다면, 당연히 학습자들은 고전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기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학교 급 간 고전 서사 텍스트의 난이도 차이가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상의 당연한 예시로 등장하던 고전 서사가 그 다음 단계의 교육 제재 및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고 기피 학습 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8>의 예시는 <표 7>에서 제시한 학교 급별 주몽 신화 텍스트에 대한 학습 목표와 활동들이다. 초-중-고의 경우 동일 작품을 제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각 목표에 따라, 그리고 학교 급에 따라 학습 활동의 내용과 수준이 다르게 구성이 되어야 옳다. 주몽 신화의 경우, 학교 급별로 각각의 목표에 맞는 다른 활동들도 제공하고 있지만, 목표와 크게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신화 혹은 영웅서사 구조의 순서에 따라 줄거리를 요약하는 학습이 모두 제공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동일 텍스트에 대한 내용 학습을 한다 하더라도 학교 급별로 내용과 목표와 생각들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단계가 있어야 할텐데, 그렇지 않은 양상이다. 내용을 묻는 발문의 유형이 늘 한정적이고,⁷⁾ 그러다보니 학교 급별 동일한 활동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도 한계라 할 수 있다.

요컨대, 학교 급별로 작품 및 학습 활동에 단계적 심화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동일 작품의 비슷한 텍스트가 계속 등장하기도 하고, 활동의 유형에서도 큰 변화 없이 같은 활동을 계속 반복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 모습이 있었다. 이와 같은 학교 급별 병렬적 구성은 초-중등의 연계성 있는 국어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7) 사실, 학습활동의 유형과 구성이 학교 급별로 비슷하게 이루어져 결국 같은 활동의 반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용 학습의 활동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이다. 사건의 순서나 전체 내용을 요약해 가며 사실 그대로를 이해하거나 추론하는 활동, 인물의 정서와 태도,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 중심 어휘나 구절, 소재, 배경, 표현의 의미와 기능을 파악하는 활동 등은 초등 국어 교과에서부터 고등학교 문학 교과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 없이 늘 등장하는 활동 유형들이다.

3. 초-중등 간 연계성 있는 고전 서사 교육을 위한 방법 제안⁸⁾

3.1. 고전에 대한 일상적 관점의 지속적 유지

앞서 2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초등 국어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고전 서사를 친숙하게 활용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예시의 체재로 활용하였으나, 중등 국어로 가면서 고전 서사를 문학 교육으로만 활용하면서 고전과 현대를 분리하고, 옛 것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드러내어 학습자들로 하여금 어렵고 따분하고 재미없는 과목으로 인식하게끔 만들었다. 심지어 학교 급별로 급격하게 어려워진 교육을 제공하거나 혹은 학교 급이 달라지는 데도 전혀 변함이 없는 교육을 제공하는 등 일관성 없고, 연계성도 없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고전’이라는 것의 정의를 보면, 옛날의 서적이거나 작품이라는 뜻도 있지만,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에게 읽힌, 모범이 될 만한’이란 뜻을 지니고 있다. 즉 아무리 시·공간적 거리감이 있어서 그것이 쓰여진 당대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가치가 있어, 여전히 애독될 수 있는 요소들을 담고 있다는 뜻이다. 복잡한 세상과 관계 속에서 그 누구도 옳은 가치를 확신할 수 없을 때, 고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알고 느끼면서 삶의 방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다. 긴 세월 간 민멸되지 않고 이어오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긴 시간이 지나도 그 속에 담긴 인생사는 방법과 원칙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무조건 오래되었다고 옛 것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미래에도 활용될 수 있는 것

-
- 8) 중등 국어과 교육은 검정 교과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출판사별 작품 선정이 자율적이다. 따라서 초-중등의 연계성 있는 교육 방법 제안에 한계점이 분명 존재한다. 당장 일반화하여 실천하기 어려운 점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과 같이 계속 초-중등 간 격차가 심한 교육을 지속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고쳐 나아가야 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다.

들을 말한다는 점을 교육에서도 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국어 교육에서는 고전을 고전답게 교육하기 이전에, 고전이 기본과 일상이라는 인식을 꾸준히 유지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나 우리 전통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려서부터 축적되어 온 것들로, 또 다른 특별한 옛날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문화’라는 인식으로 고전 서사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예로부터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은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오면서부터 있었던 것으로 늘 삶과 함께 해온 것이라, 일상으로 접하도록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교육을 행하고 나서, 고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학적 특성을 가르치고 전통 문화 측면에서의 가치에 대해서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초등 국어에서 일상으로 접하던 고전의 서사들을 중등에 가셔도 같은 맥락으로 접근하되, 단계적으로 전문성을 접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초등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고전을 친숙하게 접하다가 중등에 가서 갑자기 문학으로 접근하면서 ‘옛 것’으로 교육하게 되면, 학습자들은 중학교에 가서 갑자기 고전을 배운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 현대 문학보다 심화 단계로 배우는 것 같아 어려움을 호소하게 된다.⁹⁾ 다시 말하면, 중·고등 교과서에서 고전을 특별히 고전 문학으로만 구분 지어 교육하는 것은 오히려 학습자들로 하여금 옛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여 시공간적 거리감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등 국어 교육에서도 초등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전 서사 교육은 심화가 아닌 기본이라는 인식을 심어준 뒤에 심화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등 국어 교육에서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 문법, 독서의 모든 국어 영역에서 고전 서사를 예시로 다루었던 것처럼 중등 국어에서도 어느 정도

9) 이와 관련하여 고전과 현대의 문학을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구분 짓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할 수 있다. 고전이 물론 아주 오래 전에 형성된 것이긴 하지만, 사실 십 수 년 전과 달리, 지금 현대 문학의 개념은 지금 현재와 더 가까워졌고, 고전 역시 현재 기준으로도 밀리지 않는 그만의 특징과 의의와 가치를 지니면서 현재의 다양한 문화에 여전히 속해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는 고전 서사 예시가 함께 제공되도록 구성하여 고전을 문학, 문화로 다루면서도 초등과 연계성 있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의 <표 9>와 같이 중학교 국어에서도 고전 서사를 다양한 국어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다.

<표 9> 중학교 국어에서 고전 서사를 다양한 국어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

영역	성취기준	활용 가능한 고전 서사
말하기 듣기	[9국01-04] 토의에서 의견을 교환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9국01-05] 토론에서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박한다.	논(論) 설(說) 서발(序跋) 상서(上書) 서독(書牘) 잡기(雜記) 등 다양한 고전교술산문 + 고전 소설에서 인물 간의 대화나 의론 부분
읽기	[9국02-05] 글에 사용된 다양한 논증 방법을 파악하며 읽는다. [9국02-06] 동일한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을 읽으며 관점과 형식의 차이를 파악한다.	
쓰기	[9국03-04] 주장하는 내용에 맞게 타당한 근거를 들어 글을 쓴다. [9국03-05]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독자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쓴다.	
중학교 1~3학년 국어 자료의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득 전략이 잘 드러나는 연설, 광고 - 다양한 설명 방법을 활용한 발표, 강의, 설명문 - 동일한 글감이나 대상에 대해 상이한 관점을 보여 주는 둘 이상의 사실, 기사문 - 독서나 일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담은 대화, 수필 - 사회·문화·역사적 배경이 잘 드러난 글, 전기문이나 평전, 문학 작품 -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삶에 대한 탐구와 성찰을 담고 있는 작품 		

<표 9>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논(論), 설(說), 서발(序跋), 상서(上書), 서독(書牘), 잡기(雜記) 등 다양한 고전교술산문이나 여러 고전 소설에서 인물 간의 대화나 의론 부분의 경우는 고전 시대의 일상 글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말하기·듣기에서의 토론, 읽기·쓰기에서의 다양한 화제와 논증의 예시로 활용할 만하다. 물론 현대의 서사로도 충분하지만, 고전 서사가 제시되었을 때 유의미한 이유는 첫째, 국어의 다양한 기능들이 현대에 와서 이룩된 것이 아니라, 예로부터 늘 있어 왔던 일상이었음을 상기시켜, 이후 고전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나 거리감 등을 좁힐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고전 서사 속에 담긴 여러 의론들은 토론을 위한 토론, 논증을 위한 논증이라기보다는 일상에서의 자연스러운 주장과 근거를 기술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현대 국어 교육에 주는 시사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감성적, 인성적 설득은 고전 서사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예이기도 하다. 셋째, 동일한 소재, 주제를 가지고도 현대의 다양한 갈래의 관점과 형식 등을 비교, 대조할 수도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고전 서사 역시 여러 글 속에 포함시켜 통시적·공시적인 국어 생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시적인 접근으로 교육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거시적인 입장에서 국어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어과 교육과정 ‘중학교 1~3학년 국어 자료의 예’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자료 역시 현대의 자료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고전의 자료 역시 인지할 필요가 있다. 주의할 점은 고전 서사 텍스트를 문학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으로 접근하는 것이므로, 고전을 일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가 일상으로 접하던 아동기까지의 고전과 같이 일상이 곧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영역에서 고전을 다루고, 거부감 없이 점차 문학, 문화로서의 중등 고전 교육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초-중등 간 연계성 있는 고전 서사 교육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3.2. 갈래 간 균형 있는 교육 제공

지금의 고전 서사 교육은 초등의 경우 전래동화 위주의 구비 문학을 주로 다루고 있고, 중등의 경우 문학에서 고전 소설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은 문제점을 야기하는데, 이를 테면 구비 문학을 지나치게 쉽고 간단한 것으로 치부하고 고전 서사에게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을 조선 시대의 소설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최근으로 올수록 남아 있는 자료가 많고, 온전한 텍스트를 갖고 있어서 그렇지, 오히려 심도 있고 알면 알수록 어려울 수 있는 것이 구비문학일 수 있고,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 왔던 신화, 전설, 민담뿐 아니라, 조선 시대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구비 서사 문학이 있어 왔음을 알 필요가 있다. 또한 조선시대에만 한정하고 있는 고전 소설 역시 아주 예전부터 소설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서사 문학이 있어 왔다는 점을 제대로 교육해야 한다. 한편, 고전 교술 산문의 경우는 고전 시대의 문(文) 혹은 소설(小說)이라는 의미가 지금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상기¹⁰⁾해 볼 때, 학습자들이 지금의 ‘문학’이라 여기는 텍스트에서 많이 떨어져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인식 교육 역시 필요하다.

즉, 앞으로 고전 서사 교육은 고전 서사 각 갈래에 대한 균형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초등과 중등의 연계성 있는 교육을 위한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고전 서사의 각 갈래 내에서 비슷하거나 같은 텍스트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작품들을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초등에서 제공하던 구비 서사들을 중등에서도 꾸준히 여러 영역에서 기초적

10) 설화나 짧은 한문단편과 같은 야담, 시화나 골계전 같은 잡기류 모두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소설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중세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소설이었다. 소설이라는 오랜 용어는 원래 대단치 않다고 여긴 잡스러운 글을 통칭한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소설이라는 것은 글을 쓰기 시작할 때부터 있었으므로 새삼스러울 것이 아니었다.

인 자료로 제공하여 연계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되, 좀 더 다양한 텍스트를 제공하고, 기록 문학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꾸준히 구비 서사가 존재했다는 점 역시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교과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신화로 예를 들면, 신성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따라 건국신화, 시조신화, 부락신화, 무속신화로 나눌 수 있고, 전승 방식에 따라서 문헌신화와 구전신화로 나눌 수 있지만, 초-중-고 모두 거의 단군신화나 주몽신화만을 신고 있어 ‘신화’라 하면 학습자들이 ‘건국신화’만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무속신화 역시 가끔 실리지만 교과서에서는 그것을 ‘구전’의 형태를 띤 신화라고 인식할 수 없고, 고전 시대 전반에 걸쳐 향유되던 우리 고유의 문학과 일상이라기보다는 독특하고 동떨어진 문학 양식으로 인식되도록 교육되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성씨 범위에서의 시조신화뿐 아니라, 마을(부락)의 신화 역시 다양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고, 신화가 어떤 방식으로 계승되었는지 전승 방식 역시 고려하면서 갈래 내에서 다양한 텍스트들을 균형 있게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교육의 영역이나 갈래에 치우침 없이 다양한 고전 서사 갈래들을 학습자들이 고루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등 국어에는 여러 전래동화를 포함하여 주몽 신화와 무속신화를 포함한 설화, 고전소설, 고전교술산문, 심지어 해외 고전인 태국 전래동화 ‘수박돌이’까지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중학교 국어에 가서는 늘 수록되던 주몽 신화와 무속 신화, 고전 소설로의 ‘춘향전, 흥부전, 홍길동전, 양반전’ 정도의 텍스트에 한정하여 제공되고 있으며, 다시 고등학교 국어-문학에 가서는 급작스럽게 너무 많은 고전 서사 갈래들이 교과서에 등장한다. 다양한 고전 서사 갈래들을 일관성 있고, 균형 있게 제공하고 있다기보다는 설화와 소설을 중심으로 하고, 그 외 판소리, 민속극, 고전교술산문 등을 소략하게 다루면서 고전 서사를 매우 지엽적으로 제공하는 양상이다. 또한 학교 급별 단계성 없이 제공되고 있으며, 고전 서사가 현재화된 모습인 연극, 뮤지컬, 웹툰, 영화, 전시, 드라마 등을 고전 체제에 함께 제시하는 특별한 지점들은 있지만, 그것으로 고전 서사의 다양함을 보인다고 할 수는 없다. 고전 각 갈래 간의 다양한 역

할들과 양상들을 각 학년 군별 역량에 맞게 다양하게 제공하되, 앞서 1절에서 제시했던 교육 방향과 같이 자연스럽게 일상처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갈래 내에서나 갈래 간에 대해서도 모두 고전 서사 텍스트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특정 갈래가 고전 서사 전체를 대표한다고 느끼지 않도록, 초등-중등 모두에서 누락되는 고전 서사 갈래가 없도록 연계성 있게 고전 서사 교육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3.3. 계속적 · 단계적 교육의 추구

초등 국어 교과서와는 달리, 중등 국어과 교과서는 검정 교과서라 같은 목표라 할지라도 출판사 별로 서로 다른 텍스트와 학습 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급별로 계속적이되 단계적으로 심화되는 교육을 추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초-중-고에서 같은 작품의 차별화되지 않은 텍스트와 활동을 거의 동일하게 제공한다면 비슷한 수준의 텍스트와 활동을 학교 급마다 병렬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최대한 지양해야 할 부분이다.

첫째, 같은 작품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학교 급별로 적절한 수준 내에서 점점 심화되는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학습 활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학교 급별로 다른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내용 학습을 제시하는 것을 지양하며, 계속성을 지니면서 단계적으로 심화된 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동일한 갈래의 서로 다른 텍스트를 제공할 때에도 역시 원문의 노출, 텍스트의 길이, 내용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갈래 교육 내에서 연속성과 단계성을 느낄 수 있게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전래동화의 형태로 초등에서 제공되던 설화들은 중등 고전 서사 교육으로 가면서 전혀 제공되지 않거나 단계를 훌쩍 뛰어 넘어 제공되는 경향이 있는데, 중등에서도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다음의 <표 10>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표 10> 학교 급별 설화(전래동화)의 단계적 구성 예시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제재	해와 달이 된 오누이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연오랑 세오녀(삼국유사)
	내용	관련 단어나 문장 쓰기 활동	텍스트화 된 구전설화 감상하는(문학) 활동	일월신화로서의 심화된 문학 활동
㉢	제재	호랑이와 꽃감	호랑이와 꽃감	김현감호(삼국유사)
	내용	설득하는 말하기(말하기·듣기) 활동	텍스트화 된 구전설화 요약하는(쓰기) 활동	문학 감상 및 우리 문학에서의 호랑이에 대한 인식 비교 활동
㉡	제재	홍부와 놀부	홍보가	홍부전(놀부전)
	내용	홍부와 놀부의 대화를 통해 바른말 고운말(말하기·듣기)하기 활동	판소리 홍보가를 통해 관객과의 소통(말하기·듣기)에 대한 활동	홍부전(놀부전)을 읽고 삶의 자세에 대한 토론(말하기·듣기) 활동

설화의 경우 초등에서는 현재의 초등 교과서 구성과 같이 구전으로의 전래동화 내용을 중심으로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와 같은 일상 언어생활의 기능 측면에서 활용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중학교 단계에서는 텍스트화 된 구전설화를 제공하여 ㉠와 같이 문학으로 감상하는 활동, ㉢와 같이 요약하는 쓰기 활동, ㉡와 같이 판소리 버전으로 제공하여 소통으로서의 말하기·듣기 활동을 구성할 수 있다. 즉, 중등으로 가면서 바로 문학, 문화 교육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초등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언어 기능 측면에서의 고전 서사 역시 활용하는 교육을 행하도록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 ㉢에서와 같이 심화된 문학, 문화 활동으로 계획할 수도 있겠으나, ㉡와 같이 초-중-고 모두 고전 서사 텍스트를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심화되는 말하기·듣기의 기능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또한 앞서 2장에서 ‘주몽 신화’가 학교 급별 병렬적으로 제시되어 있음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단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지 예를 들면, 다음의 <표 11>과 같다.

<표 11> 학교 급별 ‘주몽 신화’의 단계적 구성 예시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텍스트 수준	동화로 쉽고 짧게 각색된 텍스트	주요 내용은 다 기술하되, 어휘 풀이 없이도 쉽게 읽어나갈 수 있을 정도의 의역된 텍스트	<삼국유사>의 원 텍스트 내용을 최대한 살린 텍스트
성취 기준	[4국05-04] 작품을 듣거나 읽거나 보고 떠오른 느낌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9국05-03]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에 유의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10국05-03] 문학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한국 문학 작품을 감상한다.
내용 이해 학습 활동	-주인공 인물 관계도 -내용에 대한 단편적인 질문들 -작품에 대한 다양한 생각 및 느낌	-서사 구조 파악하기 -갈등과 해결 요소들 분석하기 -전체 내용을 요약해 보면서 갈등과 해결 요소가 글에서 기능하는 바를 생각해 보기	-설화(신화)로서의 내용을 파악하기

<표 11>과 같이 같은 작품이라 할지라도 학교 급별 학습자의 수준과 성취기준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텍스트 난이도와 학습활동 역시 차등을 두면서 그와 관련된 내용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해야 한다. 성취기준에 상관없이 ‘주몽 신화’의 경우 영웅 서사 구조를 파악하는 내용 이해 학습을 하도록 구성한 경우가 많으나, <표 11>의 초등학교 단계처럼 단편적인 질문들로 내용을 파악하게 하거나, 고등학교 단계처럼 갈래의 성격과 연관하여 내용을 깊이 있게 파악하도록 하는 등 수준과 단계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심화되는 내용 학습 활동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학교 급별로 같은 텍스트를 제공하든, 같은 갈래 내에서 다른 텍스트를 제공하든 병렬적 반복 교육이 일어나지 않고 학교 급 간 연계적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학습자들이 계속성과 단계성이 잘 이루어진 고전 서사 교육을 받게 된다면, 고전 교육에 대한

거리감이나 부담감이 훨씬 줄어들 것이며, 지루함보다는 흥미와 재미, 기대감 등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4. 결론

본고는 학교 급 간 고전 서사 교육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끌어낸 후, 초-중등 간 연계성 있는 고전 서사 교육을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제안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초등 국어 교과서는 글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문장 공부의 예시, 말과 행동의 기본 국어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예시를 비롯하여 역할극에 이르기까지 일상 국어 교육을 위한 자료로 고전 서사를 활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 국어과는 대부분 고전을 고전으로만 교육하게 구성해 놓았는데, 이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고전에 대해 거리감을 느끼게 하고 자연스럽게 고전을 접하는 것이 아닌, 옛 것에 대한 학습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고전 서사 교육은 심화 단계 이전에 일상적 고전으로도 꾸준히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 급 간 난이도와 구성의 부족함은 고전 서사 갈래에 대한 균형 있는 교육, 계속적이되 단계적으로 심화되는 교육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앞으로 학습자 개개인의 교육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학교 교육 12년 전체를 염두에 두고, 초-중등 교육이 연계성 있게 구성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초-중등 국어과 전체에 기본으로 흐르고 있는 고전 서사 교육에 먼저 관심을 가지고 이와 관련하여 올바른 고전 서사 교육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자료

- 교육부(2015),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국어과 교육과정 [별책 5]」.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국어』 1-6학년 전체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국어』 1-2학년 출판사별 전체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국어』 출판사별 전체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문학』 출판사별 전체

논문 및 저서

- 강문중(2019),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중학교 1학년 교과서의 고전서사 수용 양상 연구」, 『영주어문』 42, PP.89-110, 영주어문학회.
김용기(2014), 「교과서 속 고소설의 정전화(定典化) 양상과 교수 학습 방향: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11종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古小說 研究』 38, PP.95-128, 한국고소설학회.
김창규(1986),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상 고전문학 고찰: 특히 고시조를 중심으로」, 『한국초등국어교육』 4, PP.61-80,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배재훈(2019), 「LDA를 활용한 초등 국어 교과서 수록 옛이야기 주제 비교 연구: 제6차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69, PP.299-330, 청람어문교육학회.
백순철·이창희(2013), 「한국·중국의 국어과 교육과정 고전문학 텍스트 선정 비교 및 교과서 수록 양상」, 『國語教育學研究』 48, PP.33-64, 국어교육학회.
서명희·최희정(2006), 「초등 교과서 수록 고전 제재 변천 연구(2)」, 『한국초등국어교육』 30, PP.415-458,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이원수(2014), 「중학교 국어 교과서 고전소설 제재의 현황」, 『배달말』 55, PP.533-559, 배달말학회.
이은자(2016), 「한국어 교재의 옛이야기 수록 양상과 교육 방향」, 『한국문화

- 융합학회 전국학술대회』 2016(12), PP.143-159, 한국문화융합학회.
- 장경남(2010), 「고등학교 교과서로 본 고전소설 교육의 문제와 제언」, 『우리文學研究』 31, PP.177-204, 우리문학회.
- 정혜승(2018),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전통문화 반영 양상」, 『교육문화연구』 24(6), PP.395-412,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 조동일(2005), 『한국문학통사』, 지식산업사.
- 조희정(2005), 「교과서 수록 고전 제재 변천 연구: 건국 과도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기까지 중등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17, PP.281-330, 한국문학교육학회.
- 조희정(2008), 「고전 정진의 재검토: 해방 이후 초·중등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25, PP.297-328, 한국문학교육학회.
- 조희정(2016),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 국어·문학 교과서 고전문학 제재 수록 양상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32, PP.63-11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 천효정(2017), 「2009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옛이야기 연구: 개작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61, PP.355-378, 청람어문교육학회.
- 최홍원(2017), 「고전문학 제재 수록의 이면과 그 배경의 탐색: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문학교육학』 54, PP.255-292, 한국문학교육학회.

【Abstracts】

A Study on the Textbook Review and Suggestions for the Linkage of Classical Narrative Education betwee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Cho, Seongyoon

The study aims to critically examine whether elementary-secondary Korean language textbooks have a linked classical narrative education, and suggest them to move in a better direction. Classical narrative education in elementary and secondary Korean language textbooks showed three problems in terms of connectivity. First, in elementary school, classics are the basic material of everyday Korean language, while in secondary school, classics are a radically intensified Korean language cultural activity and are converted into textualized learning materials. Therefore, there is a wide gap between the education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on the classical narrative. Second, as we move from elementary to secondary school, the difficulty and length of text between schools, the number of branches and text change radically. Third, there are some areas where there are no changes in the school level, such as presenting the same work in parallel without any further stages, or there are similar types and composition of learning activities, although the achievement criteria and learning objectives differ. To solve these problems, First, it is necessary to sustainably maintain the view that classical education should be education for daily Korean language life together with literature and cultural education, Second, it should be made

to provide a balanced education in various aspects of classical narrative types, Third, it is necessary to plan the education of classical narrative, which is linked betwee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in pursuit of education that continues and develops gradually.

Key words : elementary-Secondary Link classic education, classical narrative education, Linkage, everyday, balanced, continues, progressively

이 논문은 2019년 10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9년 11월 18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9년 11월 2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